



타이거스를 대표하는 양현종(왼쪽)·윤석민 두 프랜차이즈 스타가 주말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나란히 선발로 나서 '선두' 두산 베어스와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 그림 얼마나 기다렸던가



KIA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윤석민 두산전 선발 출격에 챔피언스필드 '들썩'

눈길이 쏠린다. 타이거스를 대표하는 두 프랜차이즈 스타가 나란히 선발로 나서 '선두' 두산 베어스와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KIA 타이거즈는 6월을 두산과의 홈경기로 연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주말 3연전의 관심사는 '선발'이다.

1일 애시 양현종이 출격하고, 2일에는 윤석민의 복귀전이 치러진다.

윤석민(2005년 입단)과 양현종(2007년 입단)은 각각 야탑고와 광주동성고를 졸업하자마자 1군 마운드에 오르며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기대주였다.

차근차근 1군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두 사람은 이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는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했다.

윤석민은 지난 2011년 투수 4관왕에 오르며 MVP에 등극했고, 양현종은 지난해 KBO리그 사상 처음으로 정규시즌·한국시리즈까지 통합 MVP를 이루면서 포효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했던 두 사람이지만 최근 행보는 많이 엇갈렸다.

윤석민이 해외 진출과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양현종이 에이스 칭호를 차지했다. 어깨 통증에 시달렸던 윤석민은 지난 2016년 10월 5일 대구 삼성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수술 후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해는 관람자로 팀의 'V11'을 지켜봐야 했다.

주말 두 선수가 나란히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르게 되면서 KIA 팬들의 가슴은 설렌다.

양현종은 이번 출격에서 안방 강세 있

기에 나선다.

양현종은 올 시즌 11번의 등판 중 7번을 챔피언스필드에서 소화했다. 결과는 1.8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5승 1패.

지난 5월 8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6.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사상 첫 1-0 완봉승을 이뤘던 기세를 이어 다시 또 두산 타선을 무실점으로 봉쇄했다.

윤석민에게는 605일 만의 마운드 출격이다. 선발로 다시 서는 것은 2016년 4월 17일 넥센 홈경기 이후 776일 만이다.

결과도 결과지만 윤석민이 마운드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복귀전이다.

앞선 3군 연습경기과 퓨처스 리그 등 6차례 실전 경기에서 나서 점점을 했던 윤석민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4km에 머물렀다. 하지만 준비 단계가 끝났고, 무대가

달라지는 만큼 스피드 상승의 여지는 있다. 여기에 변화구 감각은 여전한다는 점에서 윤석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한편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팻던이 선발 나설 예정이다.

올 시즌 불펜 난조 등 승승이 따르지 않으면서 2승에 머무른 팻던은 앞선 넥센전에서는 3개의 피홈런을 맞는 등 4이닝 1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7실점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KIA는 윤석민의 합류로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생기면서 팻던과 한승혁을 놓고 일요일 선발을 저울질했다.

팻던이 앞선 등판에서 82개를 던지는데 그쳤던 만큼 일요일에 등판해 부진 만회에 나선다. 대신 한승혁은 예정대로 주말 불펜에서 대기한 뒤, 강한 모습을 보였던 kt전에 맞춰 선발로 출격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감독 "에너지 쏟아야 할 때다" 김선빈 "감은 좋은데 윤이 안따르네"

덕아웃 T 특독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때다 = 씩씩하게 5월을 마무리한 KIA 타이거즈다. KIA는 5월 마지막 시리즈였던 주중 넥센과의 경기에서 열세를 기록하면서 어렵게 한 달 일정을 종료했다. 앞선 주말 원정에서 시즌 첫 원정 위닝시리즈에 성공했고, 상대 넥센이 여러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시즌 마지막 시리즈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 김기태 감독은 "재정비 잘해서 6월을 준비하겠다. 6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때이다. 선수들도 (앞선 경기들을)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선수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문했다.

▲윤이 없어요 = 감은 좋은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답답한 김선빈이다. 지난해 타격왕 김선빈은 아직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1일 경기 전까지 0.303의 타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무엇보다 윤이 따르지 않으면서 답답하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성적이지만 김선빈은 "감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감은 좋은데 결과가 나쁘다. 윤이 없다"고 토로하는 김선빈. 앞선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김선빈은 상대 호수비에 여러 차례 땅을 쳤다. 지난 29일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초이스의 슬라이딩 캐치에 안타성 타구가 플라이가 됐고, 30일에도 적시타를 기대했던 타구가 초이스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는 등 상대 호수비에 번번히 막히는 모습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현 별명은 타이거"

LPGA 홈피 '박성현 승리를 돕는 사람들' 조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가 박성현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 비유했다.

LPGA 투어는 지난 31일 '박성현의 뒤에서 승리를 돕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성현의 별명이 '타이거'라는 내용과 함께 우즈와의 닮은 점을 서술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는 "2016년 US오픈에서 박성현이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자 투어 캐디들은 '비교할 만한 선수는 타이거 우즈밖에 없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2016년 US오픈은 박성현이 LPGA 투어에 진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성

현이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에 나선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팬들은 박성현을 보면서 우즈를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게 된다고도 서술했다.

우즈가 미디어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팬들이 우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물론 박성현은 아직 영어에 능통하지 않다 보니 인터뷰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이지만 그 결과는 우즈처럼 '신비주의'가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또 박성현의 탁월한 스윙과 '킬러 본능' 역시 '타이거'라는 별명에 딱 들어맞는다고 평가하며 "박성현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우즈를 꼽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현을 돕는 사람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꼽힌 인물은 어머니 이금자 씨였다. /연합뉴스

박성현이 7살 때 실내 연습장에 데려가 골프를 쳐서 시작하게 한 이금자 씨에 대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박성현과 함께 사진에 찍히는 일도 드물고 코스에서도 나무 뒤에 숨어다닌다"고 묘사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가르친 박성주 코치와 맨클럽 '남달라', 캐디 데이비드 존슨도 그의 성공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로 평가됐다.

한편 박성현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 2001년 카리 웹(호주) 이후 17년 만에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선수가 된다. /연합뉴스

KIA 이범호 올스타 신기록 쓸까

3루수 부문 최다 8차례 도전... 7월 14일 울산서 올스타전

KBO가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2' 후보 120명을 확정했다.

2018 KBO 올스타전은 오는 7월 14일 역대 처음으로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다.

드림 올스타(두산, 롯데, SK, 삼성, KT)와 나눔 올스타(KIA, NC, LG, 넥센, 한화)로 팀이 구성되며, 각 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선수 120명 중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통해 양 팀의 '베스트12' 24명이 선정된다.

투수는 선발, 중간, 마무리 등 3명으로 구분해 선발하며, 포수와 지명타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부문은 각 1명, 외야수 부문은 3명이 선발된다.

KIA에서는 양현종(선발), 김윤동(중간), 임창용(마무리), 김민식(포수), 나지완(지명타자), 김주찬(1루수),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베나디나·이명기(이상 외야수)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팬 투표는 4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6일간 진행되며,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KBO STATS 앱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투표는 KBO 홈페이지 아이디로 세 곳의 투표처에서 각각 1일 1회씩 총 3회 참여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는 투표 기간 중 매주 월요일에 팬 투표 중간집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수단 투표는 오는 21일 광주, 잠실, 대구, 광주, 수원, 대전 등 5개 구장에서 실시된다.

'베스트12'는 팬 투표수와 선수단 투표수를 각각 70%, 30% 비율로 합산해 7월 2일 공개된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 퓨리케어 360° 공기정정기(1명), 삼성 무선 이어폰 아이콘X(3명), 올스타전 기념 로고볼(50명) 등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이번 투표를 통해 이범호는 3루수 부문 최다 베스트 선정 신기록 경신을 노린다. 이범호는 지난해 베스트로 선정되면서 해태 한대화(7차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임창용은 최고령 베스트 출장에 도전한다. 임창용이 마무리 투수 부문 베스트12로 선정되면 올스타전 기준 나이 42세 1개월 10일로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중년 최고령 기록은 지난해 마지막 올스타전에 나선 삼성 이승엽의 40세 10개월 27일이었다.

'초특급 루키' 강백호(kt)는 신인선수 중 유일하게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타니 구속 162.7km 찍었다

'투타 겸업' 빅리거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고 구속인 시속 162.7km(101.1마일) 직구를 던졌다.

오타니는 지난 31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1-1로 맞선 5회말 2사 2-3루 위기에서 괴력을 발휘했다.

오타니는 디트로이트 3루수 제이머 칸델라리오와 2볼-2스트라이크로 맞선 상태에서 5구째로 직구를 던졌다. /연합뉴스

이 직구의 구속은 시속 162.7km로 기록됐다. 이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직구 중 최고 구속이다.

오타니는 지난 4월 2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두 차례 시속 162.5km(101마일) 직구를 던진 바 있다.

칸델라리오에 이 공에 배트를 댔지만 타구는 오타니 글러브로 들어왔다. 오타니는 칸델라리오를 태그아웃하며 이닝을 끝냈다. /연합뉴스

추신수·오타니 ML 올스타 경쟁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 부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일본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등이 올해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 출전할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올해 올스타 팬 투표 일정과 함께 리그별, 포지션별 후보를 확정해 지난 3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2일부터 시작된 올스타 팬 투표에서는 투수를 제외하고 내셔널리그는 포수 1명과 내야 포지션별 1명씩 4명, 그리고 외야수 3명 등 8명을 선발한다. 아메리칸리그는 여기에 지명타자를 더해 9명을 뽑는다.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 부문 후보로 오른 추신수는 2년 연속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팬 투표 후보에 올랐다. 투수와 타자를 병행하며 화제를 모으는 메이저리그 신인 오타니 역시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로 올스타 후보에 포함됐다. /연합뉴스